

국가회계 재정통계

ISSN 2635-7119

2024년 여름호
Vol. 39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2023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국회 제출

재정통계 동향

2023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 동향

2023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분석

세미나

2024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CONTENTS

2024년 여름호

Vol. 39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재정통계

VOL. 39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4년 여름호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편집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부소장
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윤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전화 044-414-2561(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발행일 2024년 6월 30일
제작처 경성문화사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04 2023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국회 제출
- 07 2024년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7~9월)



재정통계 동향

- 12 2023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 13 『2022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
- 16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 23 『2024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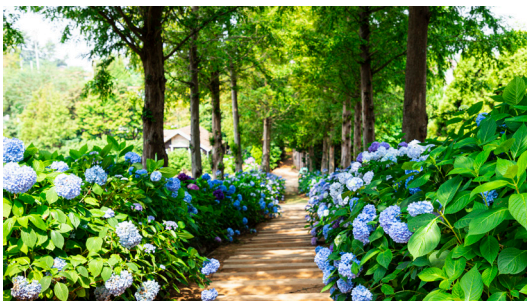
- 26 2023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분석
-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결산서 제출 일정 등
- 42 미국의 공익법인 관련 회계기준 현황
- 48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

세미나

- 52 2024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 65 「PULSAR joint EduCoP & FinCoP Workshop」 발표
- 67 「캄보디아 ACAR 대표단 업무협의회 개최」

오피니언

- 70 국가결산 개편과 현금흐름표 도입에 대한 소고
(노희천 숭실대학교 교수)



공지사항

- 77 국가회계재정통계 구독 안내
-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지토계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 2023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국회 제출
- 2024년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7~9월)

01 2023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국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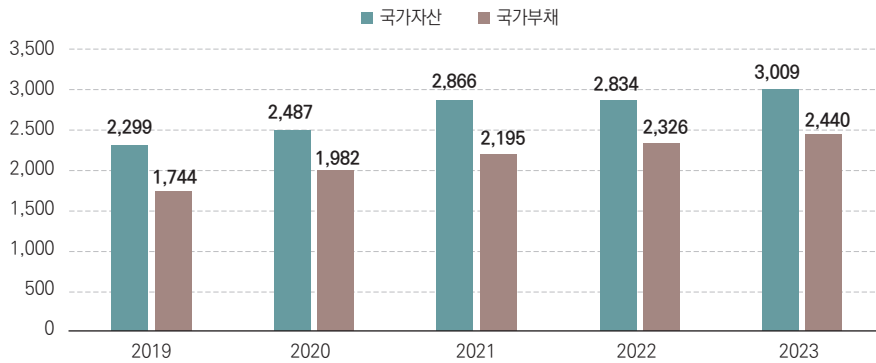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를 수정 반영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며, 감사원은 결산검사 수행결과를 5월 20일에 기획재정부에 송부하였다.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국가 자산은 5.1조원 감소하였고, 부채는 0.2조원이 증가하였다.

2023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3,009.4조원, 부채는 2,439.5조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69.9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자산은 전년 대비 175.8조원(6.2%) 증가하였으며,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 증가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부채는 전년 대비 113.5조원(4.9%) 증가하였다.

그림 1 연도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2018~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018~2023 각 연도

2023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3,009.4조원으로 전년 대비 175.8조원 증가하였다. 주된 요인은 투자자산 127.6조원, 유동자산 37.4조원, 일반유형자산이 10.5조원 증가이다. 2023년 말 현재 자산 항목 중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전체 자산의 42.4%와 24.0%를, 다음으로 유동자산이 18.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국가자산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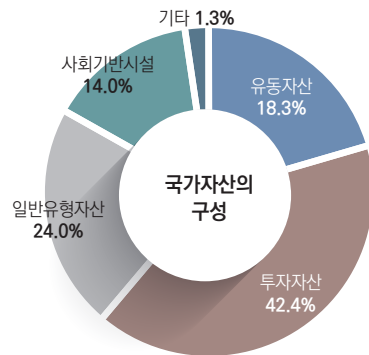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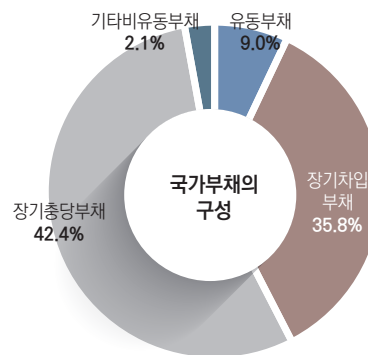


그림 3 국가부채의 구성



출처: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3

2023년 말 현재 자산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단기투자증권 367.5조원, 단기금융상품 39.1조원, 단기대여금 38.4조원 등 총 551.3조원이며,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898.2조원, 장기대여금 198.8조원 등 총 1,276.3조원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465.7조원, 전비품 118.9조원 등 총 720.9조원이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257.8조원, 철도 43.2조원 등 총 422.4조원이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2.5조원 등 총 2.8조원이다. 기타비유동자산은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21.1조원, 장기미수채권 14.6조원 등 총 35.7조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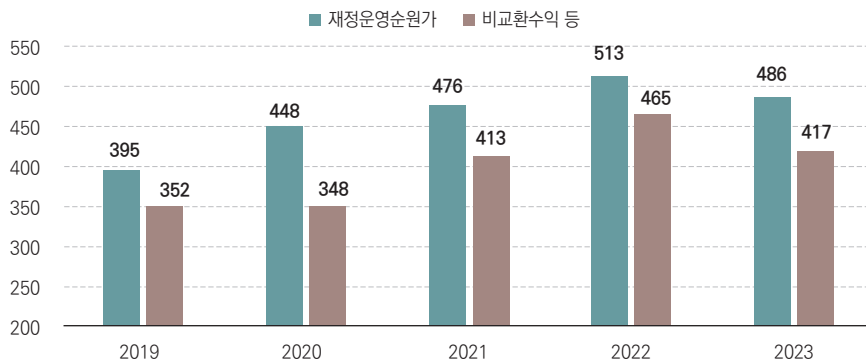
2023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2,439.5조원으로 전년 대비 113.5조원 증가하였다. 주요 요인은 장기차입부채 62.0조원, 장기충당부채 50.1조원 증가이다. 2023년 말 현재 부채 항목 중 장기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3.0%, 장기차입부채는 35.8%, 유동부채는 9.0%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말 현재 부채의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95.3조원, 유동성장기차입부채 94.5조원 등 총 219.9조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국채(자기국채 차감) 852.4조원, 공채(자기공채 차감) 18.7조원 등 총 874.3조원이다. 장기충당부채 1,293.4조원은 연금충당부채 1,230.2조원, 퇴직수당충당부채 53.3조원, 기타 9.9조원(보증충당부채 6.1조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비유동부채 51.9조원은 장기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37.8조원, 장기미지급금 14.1조원이다.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는 485.8조원이며, 비교환수익 등 417.2조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68.6조원이다. 이는 재정운영에 따른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였음을 나타낸다. 재정운영순원가는 전년 대비 26.7조원이 감소하였고, 비교환수익 등은 국세수익의 감소 등으로 47.6조원이 감소하여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47.8조원에서 68.6조원으로 전년 대비 20.8조원 증가하였다.

그림 4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환수익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2018~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018~2023 각 연도

이번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02 2024년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7~9월)



국가회계 전문교육 1차 국가회계이론과정 (6.19. 수), 섬유센터 컨퍼런스홀

「2024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6월 18일 개강하여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는 집합교육 개최 지역을 기존 7개에서 6개로 축소하여, 6개 주요 도시(서울(3회),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세종(2회))에서 9회차 과정을 진행한다. 추가적으로 각 과정당 1차수를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병행 운영하여 더 많은 교육생들이 장소와 일정에 구애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다.

본 교육은 기획재정부 주최로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다. 특히, 2018년부터는 안정적인 교육 관리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본 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국가회계이론’ 과정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등의 과목을 통해 회계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회계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업무유형별 dBrain 오류사례 및 해결방법 등의 과목을 통해 회계 담당 공무원이 회계 관련 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재무결산실무’ 과정은 재무결산 담당자가 2024회계연도 재무결산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결산업무 진행 순서대로 세부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회계의 활용’ 과정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급 과정으로 국가회계이론을 사전에 수강하고 해당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 한다.

표 1 교육 과정

과정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국 가 회 계 이 론	1 일 차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5.0	1. 회계원리의 이해 2. 재무제표의 이해 3.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이해 4. 회계순환과정의 이해
		[온라인 교육] 회계순환과정 실습	-	1. 회계거래의 식별부터 계정의 마감까지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2.0	1. 국가재정체계 2. 국가회계의 의의와 구분 3. 국가회계법령의 개요 4. 국가회계기준의 체계와 주요 내용 5.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2 일 차	[실습] 국가재무정보 기초 사례 연습	1.0	1. 국가재무정보 이해를 위한 기초사례 2. 사례를 기초로 한 국가의 예산, 추경, 재정, 프로그램, 회계와의 관계
		세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1.5	1. 세입세출거래의 복식부기 변환 2. 발생원인에 따른 세입세출거래의 3가지 유형 3. 세입세출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 4. 수익·원가·자산·부채와 국가회계의 특성
		결산조정과 발생주의	1.5	1. 결산조정: 발생주의 재무정보로의 전환 2. 자산·부채 평가 3. 기간손익 조정 4. 비현금거래와 원가의 재분류
		[실습] 종합사례 연습	3.0	1. 종합사례의 기본 가정 2.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현금흐름과 회계기록 3. 현금주의에 따른 복식부기 기록방식 및 회계처리 4. (현금주의) 수정전자산표 5. 발생주의 항목의 이해 및 회계처리 6. (발생주의) 수정후자산표와 재무제표

표 1 의 계속

과정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국가 회계 실무	1 일차	업무유형별 dBrain 오류 사례 및 해결방안	4.0	1. 유형별 dBrain 업무 처리 유의사항 - 수입·지출 관련 유의사항(1,2,3,5,6,8,9차 교육) - 국유재산, 물품 관련 유의사항(4,7,10차 교육)
		재무제표를 통해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2.0	1.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하는 이유 2. 재정운영표 살펴보기 3. 재정상태표 살펴보기 4. 주석 등 기타 정보 살펴보기
재무 결산 실무	1 일차	재무결산의 이해	1.5	1.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의의와 도입과정 2.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3. 국가재무제표의 이해 4.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24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0	1.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3. 재무장부 조회 및 점검 방법 4. 수정전시산표 마감 전 유의사항 및 마감
		감사원 지적사례	2.5	1.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 2. 주요 감사원 지적 사례
	2 일차	내부거래실무	1.5	1. 내부거래의 의의 2. 내부거래 제거방식 3. 결산담당자 유의사항 및 처리방법
		결산조정분개	2.0	1. 국가회계 결산조정분개의 이해 2. 결산조정분개 오류사례
		결산보고서 작성	2.5	1. 결산작성지침 개요 2. 결산보고서 생성 3. 결산보고서 발행
국가 회계의 활용	1 일차	국가회계정보와 결산보고서	1.0	1.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2. 정보로서의 국가결산보고서의 이해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 원가, 그리고 재정운영표의 해석	3.0	1. 국가회계에서의 원가계산의 의미 2. 프로그램세출 정보 3.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원가의 관계 4.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특성 및 활용방안 5. 재정운영표의 이해 6. 종합사례
		자산, 부채, 그리고 재정상태표의 해석	2.0	1. 재정상태표 개념 및 의의 2. 자산구성: 금융자산과 서비스자산 3. 부채구성: 금융부채와 총당부채

표 2 교육 개요

교육 기간	2024년 6~10월(총 13회차)
교육 지역 및 방식	전국 6개 주요 도시에서 집합교육(9회차)으로 진행하고, 각 과정당 1개 차수(4회차)는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병행 실시
대 상 자	국가회계 관련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인원	각 회차당 약 80~120명
교육 과정	국가회계이론 과정(2일간, 10회), 국가회계실무 과정(1일간, 10회), 재무결산실무 과정(2일간, 2회), 국가회계의활용 과정(1일간, 1회)
수강 신청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https://www.kipf.re.kr/edu/)에서 신청





재정통계 동향

////////////////

- 2023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 『2022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
-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 『2024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01 2023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2011년 재정통계 개편 이후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GFS) 및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를 매년 작성해 오고 있다.

(1) 포괄범위 지정

매년 신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장성 테스트(원가보상률 및 정부판매비율)를 수행하여 비영리공공기관과 공기업(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으로 구분한다. 2024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3개이며, 모두 일반정부로 분류되었다.

(2) 재정통계 통합 및 결과 송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등의 재정통계를 확정하면 부문별로 재정통계를 합산하고 내부거래를 고려하여 일반정부 재정통계(GFS)와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를 산출한 후 연말에 관련 재정통계를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1 포괄범위 지정

- (대상) 매년 1월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신규 공공기관
- (검토) 원가보상률, 정부판매비율 등을 검토해서 기관 분류

2 작성지침 등 배포

- GFS 및 PSDS 작성 지침과 템플릿 마련 및 배포
- 템플릿 작성 방법 관련 질의 및 응답

3 재정통계 작성 및 검토

- (중앙정부) 회계·기금재정통계작성 및 공공기관작성내역 검토
- (지방정부) 지자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재정통계 검토

4 재정통계 합산

- (내부거래 취합) 부문별로 내부에서 발생한 거래를 취합
- (부문별 통합)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반정부, 공공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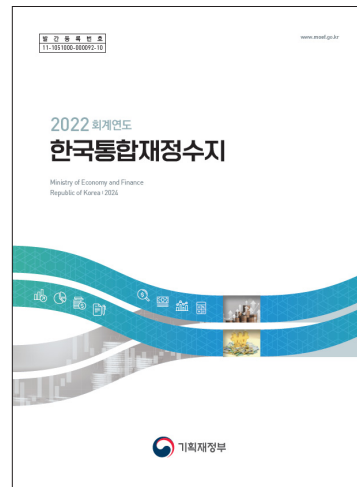
5 결과 송부

- (PSDS) D1(국가채무), D2(일반정부), D3(공공부문) 발표 및 OECD 제출
- ('01GFS) 일반정부 재정통계 IMF 제출

02 『2022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

기획재정부는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발간하고 있다.

『2022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통해 GFSM 1986 기준에 따른 중앙정부 결산 통합재정수지와 GFSM 2001 기준에 따른 일반 정부 결산 재정수지를 발표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월별·연도별 재정통계와 추이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GFSM 1986 기준에 따른 중앙정부 결산 통합재정수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재정수지

2022회계연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는 64.6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3.0\%$)를 기록하였으며, 통합재정수입은 588.3조원(GDP 대비 27.2%), 통합재정지출은 652.9조원(GDP 대비 30.2%)을 기록하였다.

부문별 수지는 일반회계 21.6조원, 기타특별회계 $\Delta 32.8$ 조원, 기업특별회계 $\Delta 1.6$ 조원, 기금 $\Delta 40.4$ 조원, 세입세출 외 $\Delta 11.3$ 조원으로 구성된다.

표 1 2022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 총괄

(단위: 십억원, %)

구분	수입(A)	지출(B)	통합재정수지(A-B)
합계 (GDP 대비, %)	588,332 (27.2)	652,902 (30.2)	△64,571 (△3.0)
일반회계	401,453	379,872	21,580
기타특별회계	17,716	50,564	△32,848
기업특별회계	2,443	4,045	△1,602
기금	166,417	206,816	△40,399
세입세출 외	303	11,605	△11,302

출처: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24. 5. 13., p. 45

(2) 통합재정수입

통합재정수입은 전년(537.6조원) 대비 9.4% 증가한 588.3조원을 기록하였다. 국세 수입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47.8조원↑)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51.9조원 증가하였고,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5.3조원 증가, 세외수입은 6.9조원 감소하였다.

표 2 전년 대비 수입원별 수입 비교

(단위: 십억원, %)

구분	국세수입	사회보장 기여금	세외수입	자본수입	계
2021년(A)	344,078	78,104	112,818	2,620	537,619
2022년(B)	395,940	83,444	105,941	3,007	588,332
증감(B-A)	51,862	5,340	△6,877	387	50,713
(증감률)	(15.1)	(6.8)	(△6.1)	(14.8)	(9.4)

출처: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24. 5. 13., p. 47



(3) 통합재정지출

통합재정지출은 전년(568.1조원) 대비 14.9% 증가한 652.9조원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는 경상지출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0.1조원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0.3조원 증가하였다.

기금은 경상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34.3조원 증가하였고, 기업특별회계는 1.0조원 증가하였다.

표 3 전년 대비 회계·기금별 지출 비교

(단위: 십억원, %)

구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기금	기업 특별회계	계
2021년(A)	339,740	50,222	2,564	172,510	3,077	568,113
2022년(B)	379,872	50,564	11,605	206,816	4,045	652,902
증감(B-A)	40,132	342	9,041	34,306	968	84,789
(증감률)	(11.8)	(0.7)	(352.6)	(19.9)	(31.5)	(14.9)

출처: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24. 5. 13., p. 47



03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우리나라는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발생주의 통계작성기준인 재정통계편람 2001(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 이하 GFSM 2001)에 따라 재정통계를 산출하여 IMF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다양한 재정지표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4년 5월 13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내용을 기반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GFS의 작성대상인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가 지배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2022회계연도 기준 일반정부의 재정수지는 1.1조원(GDP 대비 0.1%)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총자산과 부채는 각각 4,589.5조원(GDP 대비 212.3%)과 1,159.3조원(GDP 대비 53.6%)이다.

가. GFS 재정지표

GFS는 기초 저량에 기증 유량을 반영하여 기말 저량을 도출하는 체계이므로 모든 경제적 거래가 재정통계에 반영되어 재정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GFS를 통해 산출되는 대표적 재정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유형	2022년 규모 (GDP 대비)	산출식	의미	비고
순운영수지	48.8조원(2.3%)	총수익-총비용	정부운영의 지속가능성	정부운영표
재정수지 ¹⁾	1.1조원(0.1%)	총수익-총지출	금융자원의 제공 여부	정부운영표
순자산	3,430.1조원(158.7%)	자산-부채	재정활동의 지속가능성	재정상태표
순금융자산	829.5조원(38.4%)	총금융자산-부채	유동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재정상태표
확정부채	1,157.2조원(53.5%)	총부채-주식 및 기타 지분과 파생상품부채	부채의 건전성 (PSDS 기준)	재정상태표

주: 1) GFSM 2001에서는 순운자(Net lending)·순차입(Net borrowing)의 용어를 사용함

나.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

일반정부의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를 산출하는 정부운영표 주요 계정의 최근 5개 연도 추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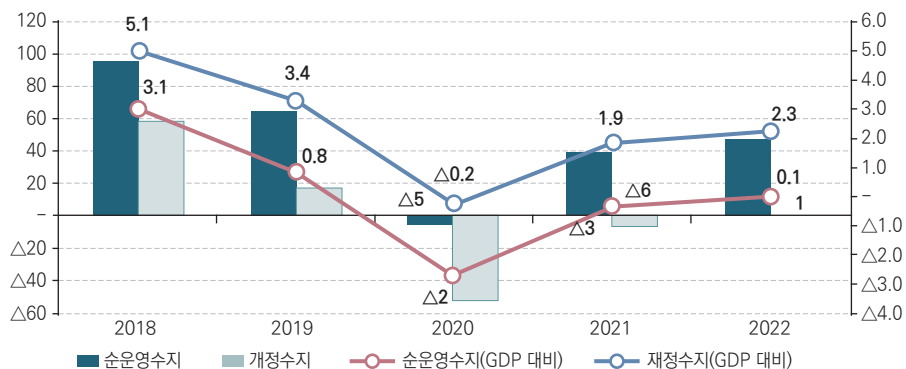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익(A)	634	3.9	655	3.4	666	1.6	765	15.0	842	10.0
총지출(B=C+D)	575	2.2	639	11.2	718	12.4	772	7.5	841	9.0
총비용(C)	538	4.0	591	9.8	670	13.5	726	8.3	794	9.3
비금융자산의순취득(D)	37	△19.0	49	30.7	48	△1.7	46	△3.9	48	3.9
순운영수지(A-C)	96	2.8	65	△32.4	△5	△107.1	39	950.4	49	23.8
재정수지(A-B)	59	23.9	16	△72.2	△52	△420.7	△6	87.7	1	117.6

재정수지의 최근 5개 연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GDP 대비 3.1%에서 2019년 0.8%로 흑자 폭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에 따라 △2.7%를 기록하며 적자 전환되었다. 이어 2021년에는 다시 적자 폭이 감소하여 △0.3%를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총수익 증가(전기 대비 76.9조원 증가)분이 총비용을 포함한 총지출 증가(전기 대비 1.8조원 증가)분보다 크게 나타나며 다시 흑자로 전환되었다(1.1조원, GDP 대비 0.1%).

그림 1 전 재정수지 5개연도 추이(2018~2022)

(단위: 조원, GDP 대비 %)



다. 자산과 부채의 추세

일반정부의 재정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 금액의 5개연도 추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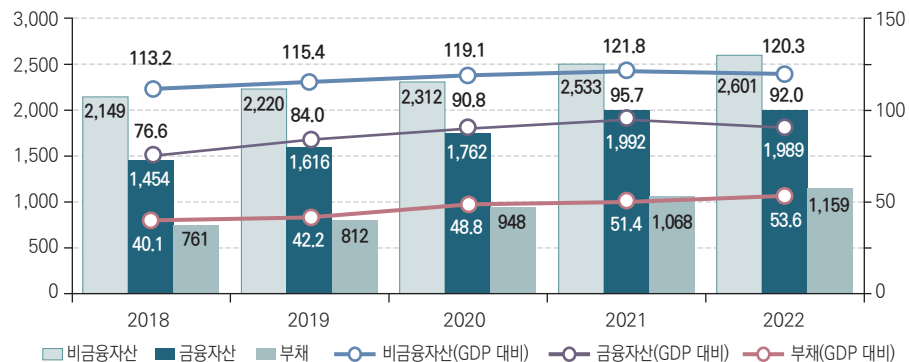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순자산	2,842	3.5	3,024	6.4	3,126	3.4	3,457	10.6	3,430	△0.8
자산	3,603	3.4	3,836	6.5	4,074	6.2	4,525	11.1	4,589	1.4
비금융자산	2,149	2.9	2,220	3.3	2,312	4.1	2,533	9.6	2,601	2.7
금융자산	1,454	4.2	1,616	11.1	1,762	9.0	1,992	13.0	1,989	△0.1
부채	761	3.2	812	6.7	948	16.7	1,068	12.7	1,159	8.5

2022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자산이 1.4% 증가하였고, 부채는 8.5% 증가하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상태표상 금융자산의 GDP 대비 비중은 2018년 76.6%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95.7%에 이르렀으나, 2022년에는 92.0%로 소폭 감소하였다. 비금융자산의 경우 2018년에는 GDP 대비 113.2%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21.8%에 이르렀고, 2022년 소폭 감소하여 120.3%로 나타났다. 부채는 2018년에는 GDP 대비 40.1%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에는 53.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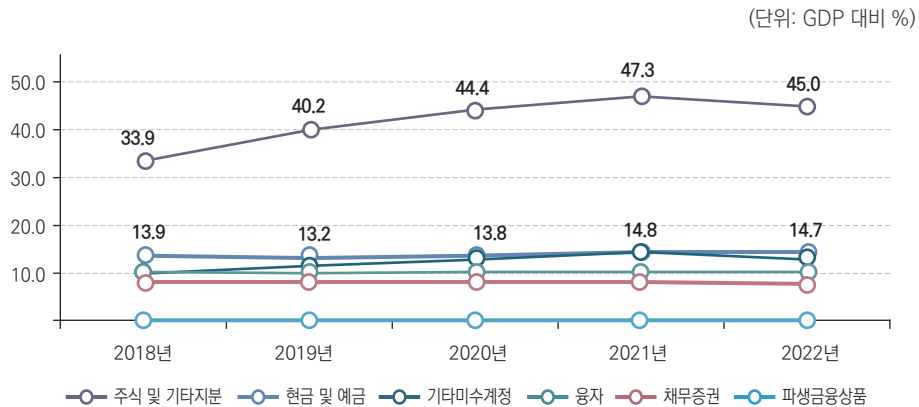
그림 1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및 부채 추세(2018~2022)

(단위: 조원,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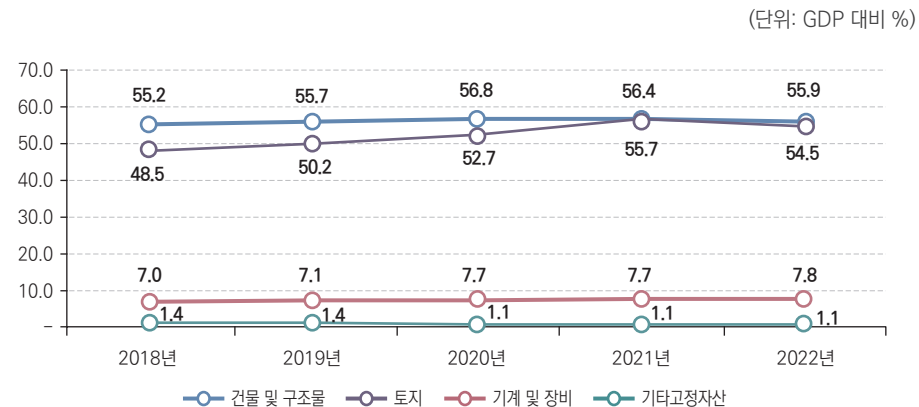
금융자산의 GDP 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3.7%p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부항목인 주식 및 기타 지분이 2.2%p, 기타미수계정이 1.2%p, 채무증권이 0.7%p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그림 2 금융자산 항목별 추세(2018~2022)



2022년 비금융자산의 GDP 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1.5%p 감소하였다. 비금융자산의 구성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 및 구조물(비금융자산 중 46.5%)의 GDP 대비 비중은 전기 대비 0.5%p 감소하였고, 토지(비금융자산 중 45.3%)의 경우 GDP 대비 비중이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비금융자산 항목별 추세(2018~2022)



라. 자산과 부채의 변동원인

GFS 체계에 따르면, 정부 정책으로 인한 모든 경제적 거래가 재정통계 보고서에 집계되므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2022년 자산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산 중 비금융자산은 거래(취득-처분-고정자산소비)가 48조원 증가하고, 토지 평가 등으로 인한 보유손익이 18조원 감소하였으며, 누락자산 등재 등으로 인한 기타내용변화가 37조원 증가하여 총 67조원이 증가하였다.

금융자산은 주로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주식 및 기타지분 취득 등의 거래로 90조원이 증가하고, 주식 및 기타지분 및 기타미수계정 등의 평가로 인한 보유손익 93조원*이 감소하여 총 3조원이 감소하였다.

*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안정성 증대로 국내외 주가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주식 및 기타지분의 평가손실 및 처분손실이 크게 증가함

2022년 부채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부채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 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채발행 등의 거래로 89조원, 평가로 인한 보유손익으로 2조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91조원이 증가하였다.

표 1 자산과 부채의 통합변동 명세

(단위: 조원)

구분	2022년 기초	변동 내역(flow)			2022년 기말
		거래	보유손익	기타내용변화	
자산	4,525.0	137.8	△110.8	37.4	4,589.5
비금융자산	2,533.3	47.7	△17.6	37.3	2,600.7
금융자산	1,991.7	90.1	△93.2	0.1	1,988.8
부채	1,068.5	89.0	2.3	△0.4	1,159.3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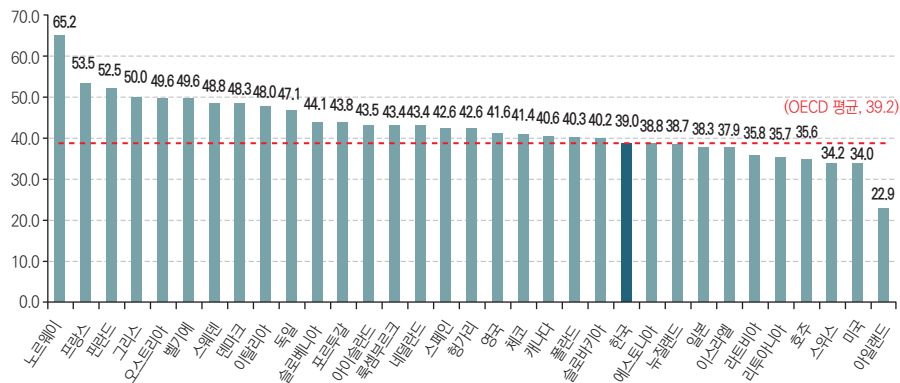
구분	2021년 기초	변동 내역(flow)			2021년 기말
		거래	보유손익	기타내용변화	
자산	4,074.1	157.6	276.1	17.3	4,525.0
비금융자산	2,312.2	45.9	149.4	25.8	2,533.3
금융자산	1,761.8	111.7	126.7	△8.5	1,991.7
부채	947.9	118.2	1.9	0.5	1,068.5

마. 국제 비교

일반정부의 총수익을 OECD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22년 우리나라 총수익은 GDP 대비 39.0%로 OECD 평균인 39.2%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다.

그림 1 2022년 일반정부 총수익의 국제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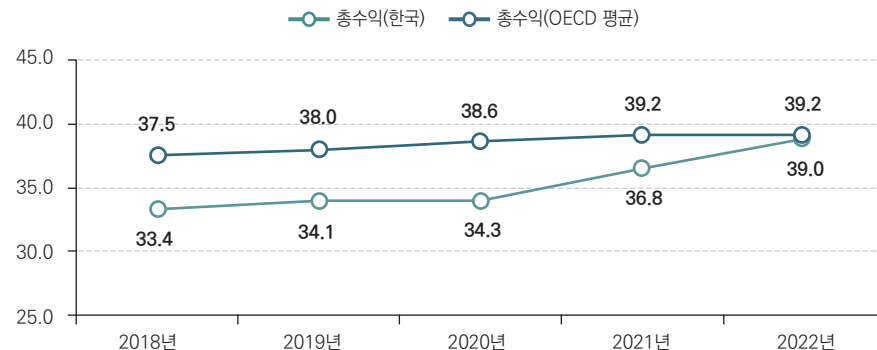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14 (2023. 11.),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수익

우리나라 GDP 대비 총수익은 2018년 33.4%에서 2022년 39.0%로 5.6%p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2018년 37.5%에서 2022년 39.2%로 1.7%p 증가하였다.

그림 2 일반정부 GDP 대비 총수익 추이(2018~2022)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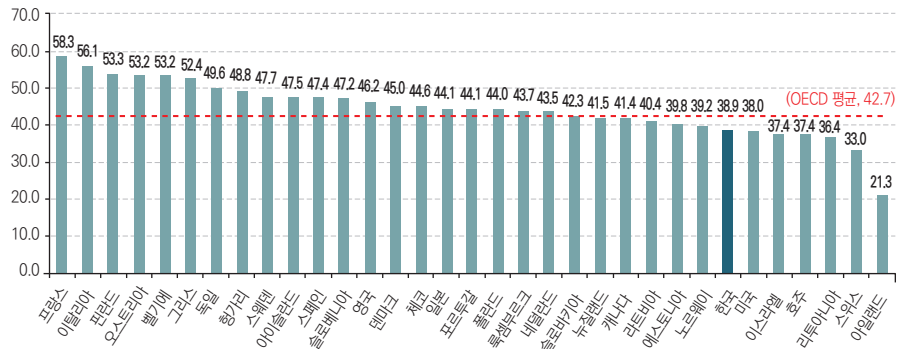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14 (2023. 11.),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수익

2022년 일반정부의 총지출을 OECD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총지출은 GDP 대비 38.9%로 OECD 평균인 42.7%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림 3 2022년 일반정부 총지출의 국제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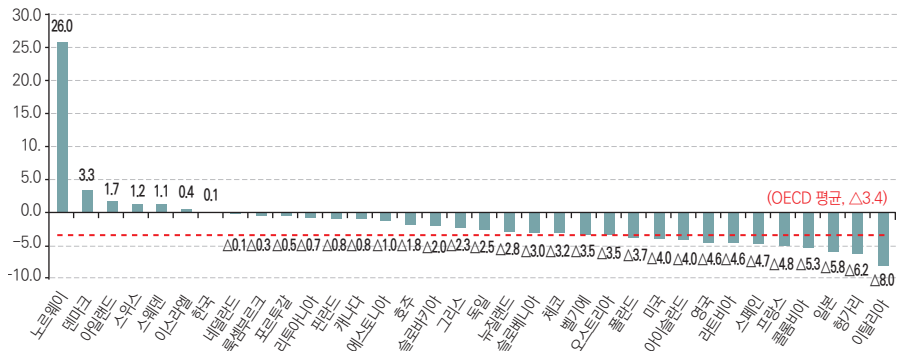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14 (2023. 11.),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지출

2022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0.1% 흑자로 OECD 재정수지 평균인 △3.4%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그림 4 2022년 일반정부 재정수지의 국제비교

(단위: GDP 대비 %)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14 (2023. 11.),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재정수지

04 『2024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재정통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계 산출방식 및 분석 결과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4 알기 쉬운 재정통계』를 발간하였다. 국제 기준에 따른 재정통계 개념과 작성 대상 정부 범위, 통계 산출 과정 등 산출 방식 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결과에 대한 분석을 수록하고 있어 우리나라 재정통계 주요 지표의 추이 변화와 국제비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정부의 범위나 부채의 개념 등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Q&A 형식으로 구성하여 정보이용

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도입과정과 이로 인한 효과를 기술하였으며, 최근 GFSM 2014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를 담고 있어 재정통계 활용과 관련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 알기 쉬운 재정통계』는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표 1 『2024 알기 쉬운 재정통계』 목차

PART	목차
1	재정통계 살펴보기
2	재정통계 작성대상 알아보기
3	재정통계 보고서 이해하기
4	재정통계 주요 계정과목 찾아보기
5	우리나라 재정통계 산출결과 분석하기
부록	2022 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국가회계
재지토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 동향

- 2023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분석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결산서 제출 일정 등
- 미국의 공익법인 관련 회계기준 현황
-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

01 2023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분석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43조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을 수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제12조에 따라 최근 5년간의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¹⁾에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전력을 포함한 32개 공기업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알리오(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구축한 정보공개 시스템

가. 공기업 재무성과

2023회계연도 32개 전체 공기업의 매출액은 186조 644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3,796억원 증가하였고 영업손실은 4조 3,405억원으로 전년 영업손실 대비 22조 2,020억원(83.6%) 감소하였다. 당기순손실은 7조 9,8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조 1,679억원(63.9%) 개선되었다. 기타포괄손익은 △3,7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5,636억원 감소하였다.

최근 3년 동안 공기업²⁾ 손익은 다음과 같다.

표 1 2021~2023 회계연도 공기업 손익

(단위: 억원)

유형	2021년	2022년	2023년
영업수익(매출)	1,483,728	1,806,849	1,860,644
영업손익	7,145	△265,425	△43,405
당기순손익	△16,989	△221,578	△79,898
총포괄손익	△11,765	△179,716	△83,673

주: 2021년 수치: 국회에 제출(2022. 8. 20.) 기준으로 작성됨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2023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상위 및 하위 공기업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당기순이익 상위 공기업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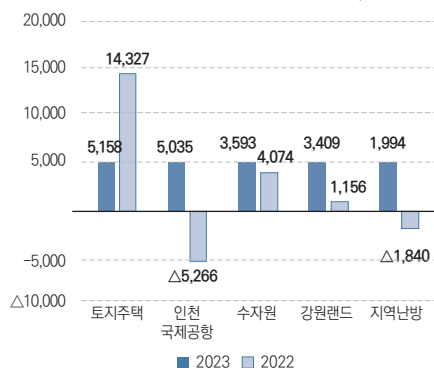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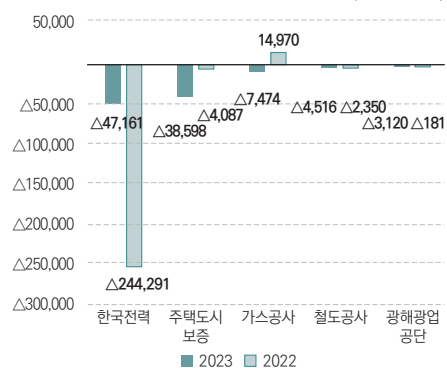


그림 2 당기순이익 하위 공기업

(단위: 억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2) 2023년도 32개 공기업 중 자회사에 해당하는 10개 기관은 모회사와 연결하여 재무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합계에서 제외 ①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9개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②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인 1개 공기업(한국가스기술공사), ③ 다만, 주식회사 에스알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였던 2022회계연도 재무성과는 합계에서 제외되었으나, 지분율의 변경(2023. 7. 1.)으로 자회사에서 해체됨에 따라 2023회계연도부터 합계에 포함됨

나. 재무성과의 주요 변동원인

2023회계연도 공기업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5조 3,796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단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 증가(16조 9,616억원),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여행수요의 증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출 증가(1조 2,153억원),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판매 물량 및 판매단가의 하락으로 인한 매출 감소(△7조 1,683억원),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의 매출 감소(△5조 7,423) 등의 영향이다.

2023년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22조 2,020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판매단가 상승 및 연료구매단가 하락으로 영업손실이 크게 감소(28조 1,135억원)한 영향이 크다. 2023년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14조 1,679억원 완화되었는데, 한국전력공사의 매출 증가 및 연료가 하락으로 당기순손실이 크게 축소(19조 7,130억원)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흑자 전환(1조 301억원)된 반면 대위변제의 증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당기순손실이 악화(△3조 4,511억원)되고, 가스 판매감소 등 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및 이자비용 증가 감소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2조 2,444억원)된 부분이 반영되었다.



표 2 주요 공기업 당기순이익 변동원인

(단위: 억원)

구분	기관	당기순이익 수치값			내역
		2022년	2023년	증감	
증가	한국전력공사	△244,291	△47,161	197,130	판매단가 증가로 전력판매수익이 증가하였으며, 발전량 및 연료단가 하락으로 연료비 및 구입전력비는 감소함. 설비증가에 따른 상각비·수선비 증가 등으로 당기순손실 개선
	인천국제공항공사	△5,266	5,035	10,301	코로나19의 종식으로 항공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이에 따른 비용은 공항운영 인력 증원 등으로 소폭 증가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흑자전환
	한국지역난방공사	△1,840	1,994	3,834	열·전기 판매량은 감소하였으나 LNG 생산단가 하락 및 연료비 정산 조정에 따른 재료비 감소로 영업이익으로 전환, 광주전남 고품폐기물 발전설비 자산손상차손 환입효과 감소 영향으로 당기순이익 증가
감소	주택도시보증공사	△4,087	△38,598	△34,511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개인보증 대위변제 급증에 따라 보증비용 증가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기록
	한국가스공사	14,970	△7,474	△22,444	천연가스 판매량 감소 및 판매단가 하락으로 매출감소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였고 이자율 상승 및 차입금 평균잔액 증가로 순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당기순손실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	14,327	5,158	△9,169	부동산 경기 하락, 토지판매 분양대금 연체 증가 및 임대주택 분양물량 감소 등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감소

출처: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기관 제출 결산보고자료

다. 공기업 재무상태

2023회계연도 공기업 자산은 723조 2,2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 7,979억원 증가(1.8%)하였으며 총부채는 523조 8,0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 7,626억원 증가(3.1%)하였다. 공기업 자산은 주로 전력, 도로 등 에너지·운송부문 시설과 임대주택 등으로 구성되며, 에너지 부문의 전력설비 증가 및 부동산 부문의 임대자산 증가, 교통수송부문의 건설 등 자산 증가 요인으로 증가하였다. 부채는 금융부채와 충당부채, 종업원급여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차입 및 사채 발행 등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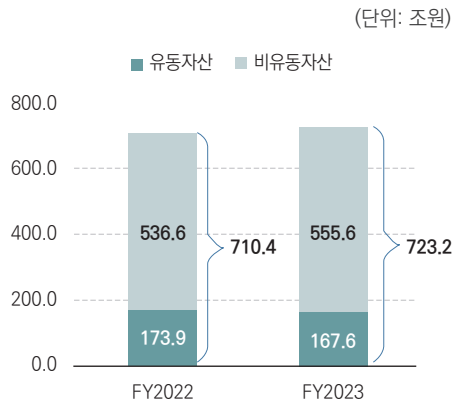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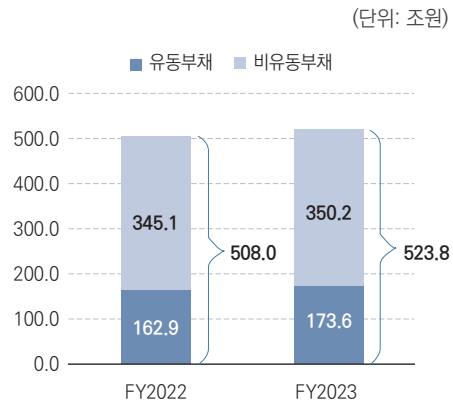


그림 4 부채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공기업 자산 구성은 발전 설비 등 유형자산(37.0%)과 임대주택 등 투자부동산(17.1%), 분양토지 등 재고자산(14.8%) 등이며, 부채는 금융부채(68.4%)와 장단기 매입채무(10.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자산 구성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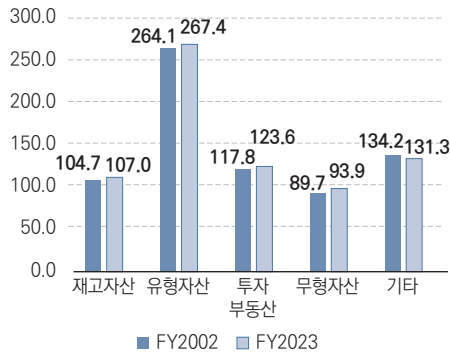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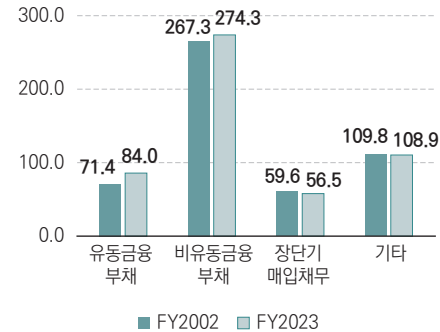


그림 6 부채 구성

(단위: 조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공기업의 전체 자산과 부채는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설비와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투자부동산 등이 전체 공기업 자산의 64%를 차지한다.

그림 7 공기업 기관별 자산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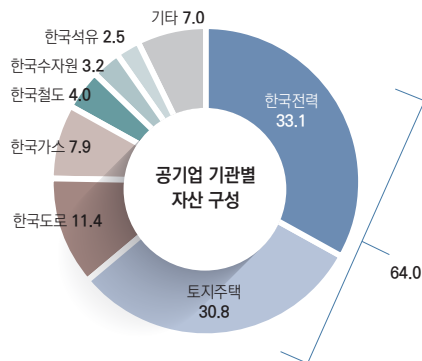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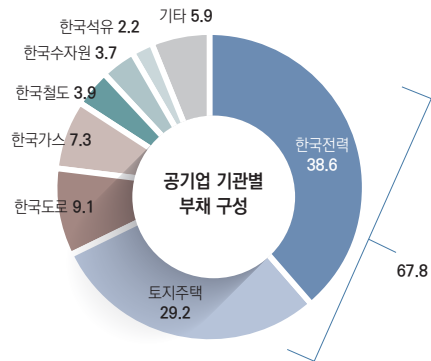


그림 8 공기업 기관별 부채 구성

(단위: %)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라. 재무상태의 주요 변동원인

1. 자산·부채 주요 증감

2023회계연도 공기업의 자산은 전년 대비 12조 7,979억원 증가하였다. 한국전력 공사의 전력설비 건설 및 보강 등에 따른 유형자산 증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지분 증가, 세무상 결손금 발생 등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 증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3기 신도시 착공에 따른 재고자산 증가, 임대주택 건설 사업비 투입 등으로 임대 자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2023회계연도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15조 7,626억원 증가하였다. 한국전력 공사의 부채 증가(9조 6,455억원)의 영향이 컸으며, 이는 연료가 하락 영향 등으로 단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는 감소했으나 투자비 집행 등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 및 사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 한국가스공사의 LNG 구매단가 하락 등에 따른 단기성 차입금이 감소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대금 회수부진에 따른 사채 발행 및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증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채발행으로 차입금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부채가 증가하였다.

표 3 주요 공기업 자산 변동원인

(단위: 조원)

구분	기관	자산			내역
		2022년	2023년	증감	
증 가	한국토지 주택공사	213.6	222.9	9.2	3기 신도시 착공 이후 공급초기 단계로 재고자산 증가(5조 6,691억원), 임대주택 건설 사업비 투입 등으로 임대자산 투자부동산 증가(5조 8,247억원)
	한국전력 공사	234.8	239.7	4.9	전력설비 건설 및 보강 등으로 유형자산 증가 (2조 102억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 증가(6,706억원), 세무상 결손금 발생 등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 증가(2조 2,274억원)
	한국도로 공사	78.3	82.2	3.9	고속도로 준공 및 개량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권 증가(1조 4,620억원) 및 서울세종선 건설 등 노선 증가(2조 5,523억원)

표 3 의 계속

구분	기관	자산			내역
		2022년	2023년	증감	
감 소	인천국제 공항공사	14.2	15.4	1.2	제2터미널 확장 및 활주로 1개 추가 등이 포함된 4단계 건설사업 등으로 유형자산 증가 (1조 1,006억원), 매출채권 증가(757억원), 투자부동산(396억원) 등으로 자산 증가
	한국가스 공사	62.4	57.3	△5.2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라 당기 미수금 증가(3조 7,452억원)하였으나, LNG 판매단가 및 구매단가 하락에 의해 매출채권 감소 (△4조 7,473억원), 재고자산 감소
	주택도시 보증공사	7.6	4.6	△3.0	전세금보증금 등 개인보증사고 급증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 등으로 예치금(△3조 9,500억원) 감소하여 금융자산 감소
	한국수자 원공사	23.2	23.0	△0.2	분양 매출 감소 영향에 따른 재고자산 증가 (1,991억원)에도 불구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감소

출처: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기관 제출 결산보고자료

2. 차입금 및 사채

2023회계연도 공기업의 차입금 및 사채는 전년 대비 20조 4,390억원 증가한 357조 961억원으로 부채의 많은 부분(68.2%)을 차지한다. 차입금의존도³⁾ 또한 49.4%로 민간 31.3%⁴⁾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데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고 민간에 비해 자본 조달이 용이한 공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기업 에너지부문의 차입금 및 사채는 201.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1조원 증가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설비 투자 등 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금 및 사채가 13.0조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3) 차입금 의존도 = (차입금+사채)/총자본, 2023회계연도 민간 차입금의존도는 2021년 수치적용

4) 한국은행, 「2022년 기업경영분석」(2023.12.)

부동산부문 차입금 및 사채 규모는 88.4조원으로 전년 대비 6.7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대금 회수부진으로 차입금 및 사채가 6.7조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교통·수송부문의 차입금 및 사채는 66.4조원으로 전년 대비 3.7조원 증가하였는데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투자 재원마련을 위한 사채 증가 등의 영향이다.

그림 9 공기업 차입금 및 사채 규모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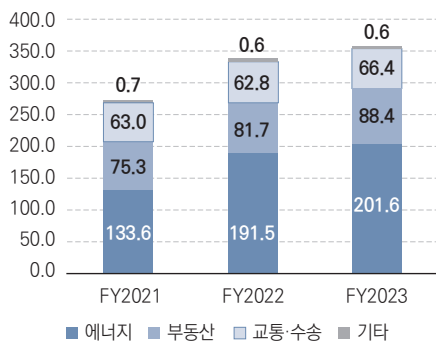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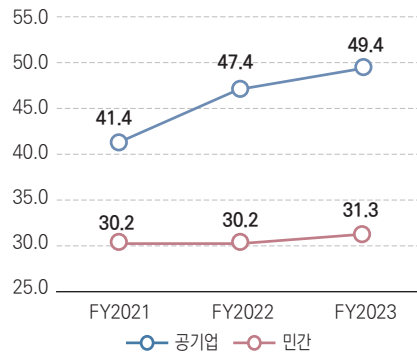


그림 10 차입금의존도 추이 민간 비교

(단위: %)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한국은행, 「2021년 기업경영분석」(2022. 12.)



마. 정부출자금 및 배당금

2023회계연도 공기업에 대한 정부출자금은 121조 2,703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2,212억원 증가하였다. 정부출자금의 64.1%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고속도로 사업 및 임대주택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자금은 전년 대비 1조 8,473억원 증가한 40조 7,834억원이며 한국도로공사의 출자금은 전년 대비 1조 1,109억원 증가한 36조 9,07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11 공기업 자본금 및 정부출자금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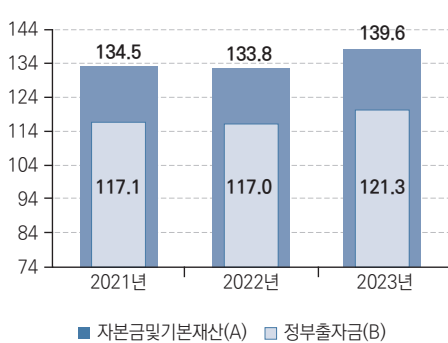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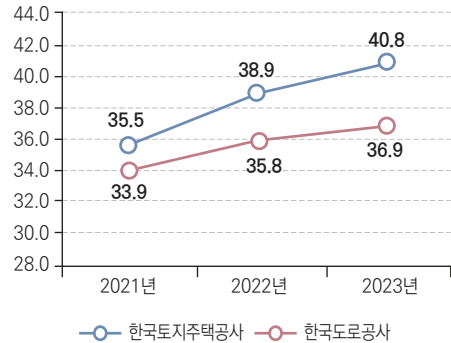


그림 12 정부출자금 주요 기관

(단위: 조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2023회계연도 배당금은 전년 대비 14.0% 증가한 4,504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이 배당을 실시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배당금이 감소(1,868억원)하였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배당 증가(2,248억원), 한국도로공사의 배당 증가(312억원) 등으로 배당총액은 전년 대비 554억원 증가하였다.

그림 13 공기업 배당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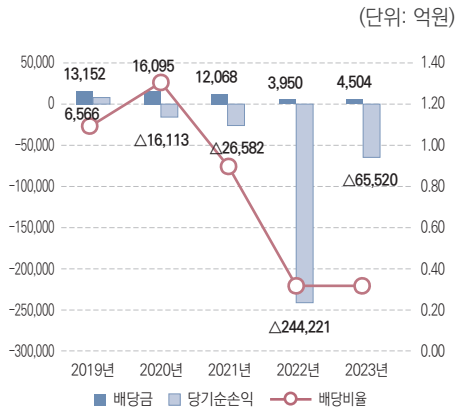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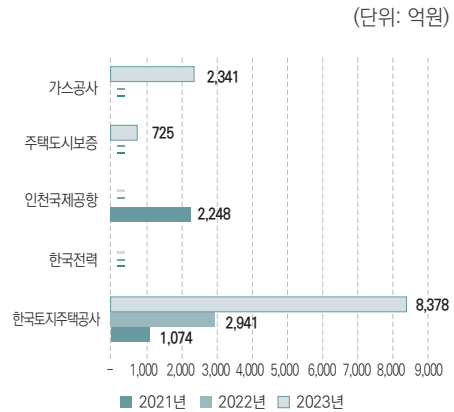


그림 14 주요 기관별 배당금 추이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바. 공기업 주요 재무지표

전체 공기업의 2023회계연도 수익성, 생산성, 안정성 모두 전기 대비 개선되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Delta 2.3\%$ 로 전년 대비 12.4%p로 큰 폭 상승하였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크다. 매출액 순이익률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하면서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등의 당기순이익이 개선되었지만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손실이 크게 악화되면서 전년 대비 10.5%p 하락하였다.

대표적 안정성지표인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49.0%p 상승하였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실적 악화 및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당기순손실이 심화된 영향으로 자본이 감소하였고, 차입금 및 사채가 증가하는 등 총부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액은 전년 대비 25.6조원 감소한 반면 매출액은 증가한 영향으로 부가가치율은 전년 대비 19.8%p 감소한 9.1%를 기록하였다.

최근 3년 동안 공기업 주요 재무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4 2021~2023회계연도 공기업 주요 재무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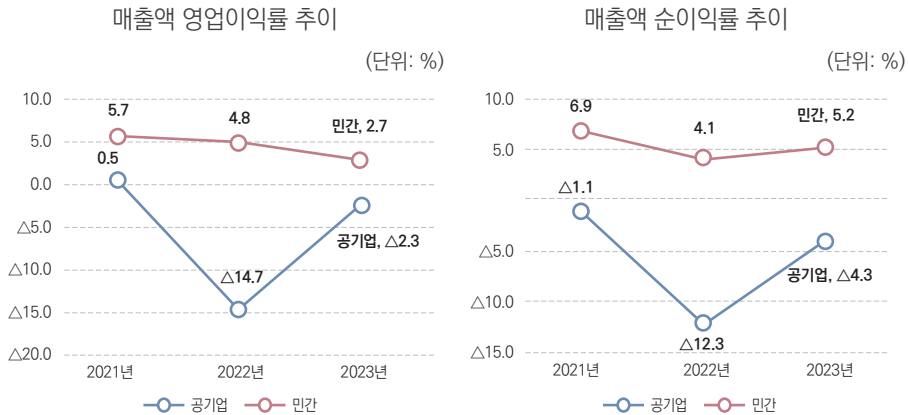
(단위: %, %p)

	구분	2021년	2022년(a)	2023년(b)	증감(b-a)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	0.5	$\Delta 14.7$	$\Delta 2.3$	12.4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손익/매출액×100)	$\Delta 1.1$	$\Delta 12.3$	$\Delta 4.3$	8.0
안정성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193.7	251.0	262.7	11.7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100)	10.3	—*	—*	—*
생산성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액/매출액×100)	28.9	9.3	22.1	12.8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평균)×100)	23.1	26.0	26.7	0.7

주: *이자보상비율이 부(-)의 값으로 표시하지 않음

공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을 민간기업과 비교한 결과 공기업의 경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한국전력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확대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민간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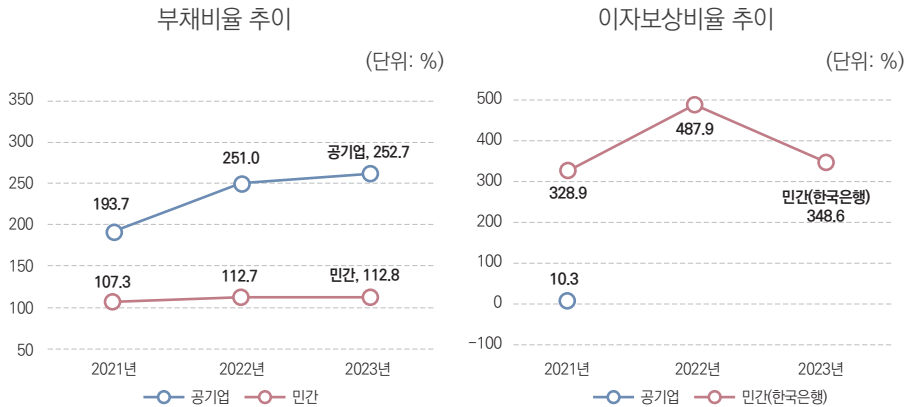
그림 15 공기업 수익성 지표 추이



출처: 한국거래소, 보도자료5) 중 연결기준 주요 재무정보 재구성

2023회계연도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안정성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해 회사채 발행이나 차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고, 동시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민간에 비하여 부채비율이 높고 이자보상비율은 낮은 특징이 있다.

그림 16 공기업 안정성 지표 추이



출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3 사업연도 결산실적」, 보도자료

주: 2023회계연도 민간 이자보상비율은 2022회계연도 수치 적용
출처: 한국은행, 「2022년기업경영분석」(2023.12.)

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 보도자료, 2024. 4. 3.

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결산서 제출 일정 등



정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공공기관의 결산서 제출일을 연장하고, 국회의 결산 심사기간을 충분하게 제공하고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 개정안이 2024년 3월 26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가 일부개정 되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의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 제출은 3월 15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의 국회 제출은 7월 31일로 변경되었다.

표 1 공공기관 결산 일정 개정 전·후 비교

결산 일정	개정 전	개정 후	변경 효과
기획재정부 장관 제출(공기업), 주무기관장 제출(준정부기관)	2월 말일까지	3월 15일까지	15일 연장
기획재정부 및 주무기관장 승인	3월 31일까지	4월 10일까지	10일 연장
감사원 제출	5월 10일까지	5월 15일까지	5일 연장
감사원 검사	7월 31일까지	7월 10일까지	21일 단축
국회 제출	8월 20일까지	7월 31일까지	20일 단축

출처: 「공공기관운영법」 활용하여 저자 작성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의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 제출이 3월 15일로 연장됨에 따라 결산서의 회계신뢰성이 내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에는 2월 말일까지 결산서 제출 의무로 인해 외부회계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기관에 부담이 있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인인 오류검증 등 충분한 감사기간 확보로 감사 내실화를 통한 결산서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의 국회 제출은 7월 31일로 앞당겨졌고, 이에 따라 국회 결산 제출일(8. 20.) 기준으로 결산 일정은 20일 단축되었다. 결산 과정의 불요불급한 일정 등을 최소화함에 따라 국회 결산 심사기간이 보장('19, '20 결산 시정요구사항) 되어 실효성 있는 결산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의 시행일은 2024년 9월 27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024회계연도부터 변경된 일정으로 결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3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7. 10. 31., 2020. 6. 9.>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②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3월 15일 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4월 10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09. 12. 29., 2020. 6. 9., 2024. 3. 26.>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 ③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5일까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24. 3. 26.>
- ④ 제3항에 따라 결산서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7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24. 3. 26.>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선정 기준 및 회계감사의 절차,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7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24. 3. 2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해에 실시하는 결산에 관하여는 지정 당시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부 칙 <법률 제20400호, 2024. 3. 26.>

제3조(결산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03 미국의 공익법인 관련 회계기준 현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발전을 위해 지난 2022년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외사례 비교 분석」 위탁연구과제를 진행하였다. 위탁연구보고서는 해외 각국의 공익법인과 관련한 회계기준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외 공익법인과 관련한 회계기준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공익법인과 관련한 회계기준 현황을 다루며, 추후 다른 국가들의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가. 회계기준 제·개정

미국은 1920년대 이후 기금회계가 도입되며 비영리회계와 영리회계가 구분되어 발전하였다. 비영리단체회계는 대학·의료기관 등 각 조직에서 각자의 회계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재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설립되었다.

1977년부터 FASB는 비영리단체의 회계기준에 관여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에는 ‘개념기준서 제4호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 목적’(SFAS(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4를 발표하여 비영리단체의 통합된 회계기준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에는 SFAS 116(기부금 수수에 관한 회계), SFAS 117(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을 제정하여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2008년에는 기존의 SFAS가 ASC(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 958로 통합되어 미국의 면세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은 ASC 958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FASB 산하에 NAC(Not-for-profit Advisory Committee: 비영리자문 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규로 제·개정되는 비영리단체 회계기준이 비영리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나. 회계기준 적용대상

미국은 비영리단체 설립 등과 관련한 연방의 단위의 통일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비영리단체의 법인세 면제를 적용하기 위해 면세단체를 정하는 법률은 존재한다. 「연방세법」(IRC §501(c)와 §501(d))에서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면세단체의 종류와 성격을 나열하고 있다. 「의회법」(Act of Congress)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종교·자선·과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선단체, 사회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선단체, 노동·농업 또는 원예조합, 상호공제회 등은 추가적인 면세요건을 충족하면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면세단체이며 미국 국세청(IRS)의 승인·지정을 받아 확정된다. 이러한 면세단체는 ASC 958이 적용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 공시

미국의 비영리단체 중 면세요건을 충족한 면세단체는 Form990을 통해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세무신고와 다르게 면세단체 세제 혜택에 대한 의무사항 및 공익성 유지 확인을 위한 신고사항이다. 면세단체 세제혜택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직접적인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orm990은 면세단체의 수행목표 및 주요 활동, 세금준수에 관한 사항, 관리 방식, 임직원 보수, 재무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SC 958이 적용된 재무 제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면세단체가 미국 국세청에 신고한 Form990은 미국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인 채리티워치(CharityWatch)나 가이드스타(GuideStar)에서 예산 집행 및 재무 보고 절차 등에 대해 간접적으로 감시·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라. 회계기준 내용

미국의 비영리단체 회계기준의 내용은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외사례 비교 분석」 위탁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ASC958 내용을 직접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1) 일반원칙

미국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회계기준은 일반 GAAP의 원칙을 준용하며 비영리 단체에만 적용되는 규칙(ASC 958)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GAAP의 규칙은 면세상태 유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것과 더불어 보조금 지급자를 포함한 기부자에게 면세단체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 규칙을 두고 있다.

표 1 미국 ASC 958의 별도 규칙 목록

별도 규칙 목록	내용
순자산 레이블 지정	비영리단체의 재무상태표에 포함된 순자산은 기부자 제한 여부에 따라 라벨이 표시됨(기증자 제한은 기증자로부터 받은 보조금 또는 기타 문서에 의해 부과 될 수 있음)
현금흐름 설명	비영리단체는 재무상태표에 열거된 양적 정보 외에도 일상적 비용을 충족하기 위해 유동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질적 정보를 제공해야 함
투자	비영리단체는 투자와 관련된 관리수수료를 별도 보고할 의무는 없으나, 대내외비용에 대한 투자수익순액 신고를 의무화함
기여금	회계담당자는 GAAP의 원칙에 따라 개인, 기업 또는 기타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모든 기여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록해야 함

출처: 임채창·엄기중,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외사례 비교 분석」, 2022

2)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재무적 유연성 및 비영리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비영리단체의 자산은 기부자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기부자가 부과한 제한에 기초하여 자산을 분리하여 보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부자가 부과한 제약 또는 이사회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자산은 제약 또는 지정의 성격이 재무상태표 본문에 명확하게 있지 않은 경우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순자산의 경우 기부자 제약 있는 순자산과 기부자 제약 없는 순자산으로 구분한다. 기부자 제약은 일시적인 제약과 영구적인 제약 모두를 포함하며, 일시적인 제약은 특정 날짜 이후 사용할 수 있거나, 특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용도 혹은 특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기부자가 부과한 제약의 성격과 금액에 대한 정보를 재무상태표 본문에 보고하거나 주석의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3) 운영보고서

운영보고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대응되어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재무제표이다. 운영보고서는 순자산의 금액과 성격을 변화시키는 거래 및 기타 사건이나 상황의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자산의 변동 사항을 나타낸다.

운영보고서는 수령한 자산의 사용이 기부자 부과 제약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발생한 수익은 기부자 제약 없는 순자산 증가로 보고해야 한다.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 수익과 투자수익은 기부자 제약이 없으나 기부자가 제약을 설정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 제약 있는 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 비용의 경우 투자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기부자 제약 없는 순자산의 감소로 보고하며, 투자비용은 관련 투자수익과 상계되어 투자수익의 기부자 제약 유무에 따라 관련 순자산 범주에 반영한다.

운영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총수익과 총비용 금액을 보고해야 하지만 투자수익은 외부 및 직접 내부 투자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보고한다. 또한 손익이 부수적인 거래 또는 비영리단체와 경영진이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사건 및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 순액으로 보고할 수 있다.

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특정 기간 기업의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 GAAP의 원칙을 준용하며 몇 가지 특별지침을 두고 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장기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기부자 부과 제약이 있는 현금수령, 에이전시 및 대리거래, 비현금 투자 및 재무활동, 수집품 등에 대해 특별지침을 두고 있다.

표 2 미국 비영리법인 현금흐름표 특별지침

별도 규칙 목록	내용
현금성 자산	일반적인 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한사항으로 인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동성이 높은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자 사용을 제한하는 기부자 부과 제약이 있는 자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된다.
에이전시/대리거래	대리거래로 인한 수취 및 지급된 현금도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보고한다. 이때, 현금흐름표가 간접법으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수취 및 지급된 현금도 총액 또는 순액으로 보고할 수 있다.
비현금 투자 및 재무활동	비현금 투자 및 재무활동(건물, 유가증권, 수집품 수령)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수집품	수집품 항목의 구매, 판매 및 보험금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현금흐름표에 투자활동으로 보고된다.

출처: 임채창·엄기중,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외사례 비교 분석」, 2022

5) 수익인식

미국 비영리단체의 수익은 ASC 958-605의 지침을 준수하며 ‘받은 기부금’과 ‘타인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하거나 보유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자선 신탁으로의 자산 이전과 관련한 지침을 두고 있다.

‘받은 기부금’은 수취한 혜택의 형태에 따라 수령한 기간의 수익이나 이익, 자산으로 인식하거나 부채나 비용의 감소로 인식한다. 조건 없는 기부약정의 경우는 약정을 받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며 조건부 기부약정은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 조건이 없는 상태가 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또한 용역으로 받은 기부의 경우 해당 용역으로 인해 비금융자산의 창출 또는 강화가 일어나거나, 해당 용역에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기부에 의해 제공되지 않고 별도 구매해야 하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하거나 보유한 비영리단체 또는 자선 신탁으로의 자산 이전’에 대한 지침은 기부자가 비영리단체를 중개인, 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으로 하여 제3의 수증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누가 기부를 보고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한 자산의 이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비영리단체가 중개인으로 자산을 이전 받는 경우 자산의 인식과 함께 제3의 수증자에 대한 부채를 동시에 인식한다. 비영리단체가 대리인으로 자산을 이전 받는 경우 자산의 인식과 함께 제3의 수증자에 대한 부채를 동시에 인식한다. 다만, 비영리단체가 이전 받은 자산을 다른 수혜자에게 보낼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 비영리단체는 중개인, 대리인 등이 아닌 수증자로 작용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6) 비용인식

미국 비영리단체의 비용은 ASC 958-720의 지침을 준수하며 ‘기금 모금을 포함하는 활동비용’에 대한 지침을 두고 있다. ‘기금 모금을 포함하는 활동비용’에 대한 지침은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모금활동과 결합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비용이나 일반관리 비용으로 보고하는 것에 필요한 지침을 다루고 있다.

‘기금을 포함하는 활동비용’ 지침은 공동 활동비용의 배분에 대해 배분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유사한 사실과 상황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합리적인 방법의 예시로 프로그램, 일반관리 또는 모금에서 발생한 비용의 크기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는 프로그램 서비스 및 지원활동(일반관리활동, 모금활동, 회원 개발활동)의 주요 구분과 같은 기능별 비용 분류에 대한 정보를 운영보고서 또는 주석에 표시해야 한다. 프로그램 서비스는 비영리단체의 목적이나 이념을 수행하기 위해 수혜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배포하는 활동이다. 일반관리활동은 경영관리, 인사, 예산 자금조달 등의 활동을 포함하며, 모금활동에는 모금홍보, 기부자 메일리스트 관리, 특별 모금 행사 수행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회원 개발 활동은 예비 회원 유치, 회비 요청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회원 개발 활동은 회원에 대한 상당한 혜택이나 의무가 없는 경우 실질이 모금일 수 있으므로 관련 비용은 모금비용으로 보고한다.

04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뿐 아니라 주석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15개의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다.

규모가 큰 공익법인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며 주석 작성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많으나,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가 아닌 주석 자체가 생소한 경우가 많으며 주석 작성을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개정하였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15개 중 7개의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이 작성해야 할 주석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 외부회계감사 받지 않는 공익법인 주식사항

No.	구 분
1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내용
2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3	현물기부의 내용
4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5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6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7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출처: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1조

또한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 공익법인의 주식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주식별로 주식의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태로 구성하여 주식표준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주식의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주식 작성 매뉴얼과 주식 작성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익법인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공익법인은 주식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식을 작성하여 pdf 또는 이미지파일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각 항목별 주식 내용을 작성할 수도 있다.

그림 1 홈텍스 공익법인 주식 작성 메뉴

주식서류 직접 작성

주식서류명	해당없음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작성대상)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보유한 공익법인 	<div>주식 작성하기</div> <div><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작성대상) 차입금[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이 있는 공익법인(사채제외) 	<div>주식 작성하기</div> <div><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기부의 내용 (작성대상)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이 있는 공익법인 	<div>주식 작성하기</div> <div><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작성대상)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자산,결권설정 및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등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익법인 	<div>주식 작성하기</div> <div><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작성대상)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공익법인 	<div>주식 작성하기</div> <div><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작성대상) 회계연도 말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공익법인 	<div>주식 작성하기</div> <div><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작성대상) 기본순자산이 있는 공익법인 	<div>주식 작성하기</div> <div><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div>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국가회계
재지토계





세미나



- 2024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 「PULSAR joint EduCoP & FinCoP Workshop」 발표
- 「캄보디아 ACAR 대표단 업무협의회 개최」

2024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가. 개요

- 주 제: 공공부문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 및 활용도 제고
- 일 시: 2024년 5월 17일(금) 14:00~18:00
- 장 소: 가천대학교 가천관
- 주 최: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1. 특별기획세션

- [발 표] 강성조 박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좌 장] 김완희 교수, 가천대학교
- [토론1] 강민철 팀장,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토론2] 김숙진 팀장,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 [토론3] 박성진 소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토론4] 강인재 원장, 재정성과연구원
- [토론5] 정성호 소장, 한국재정정보원
- [토론6] 양영철 본부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토론7] 나주영 회계사, 정윤회계법인
- [토론8] 김이배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 (발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

- (배경)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유용성, 적절성, 사전경보 기능 등 정보 유용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재접근 필요

- (필요성) 거시적 측면에서는 예산회계정보와 발생주의정보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며, 미시적 측면에서는 원가분석을 통한 재정건전성 검토 필요
- 그 외 재무분석 지표를 토대로 횡단면·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며, 표준화된 원가 산정을 통한 성과지표 연계의 필요성 검토
- 거시적 측면의 분석
 - 재정상태, 재정운영 및 회계책임 등 현행 3개 분야의 30개 재무분석지표는 자치 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지표가 존재하여, 질적 특성 관점에서 재검토 필요
 - 자산 및 자산 규모의 의미, 부채 규모 및 비율 분석, 부채와 이자수의 및 비용의 의미, 재정운영순원가 보상률의 중요성, 미래세대 이전비용 측면 고려 등 주요 지표의 개선

표 1 30개 재무분석지표

재정상태 분야(9개)	재정운영 분야(10개)	회계책임 분야(11개)
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① 예산 대비 세출 비율	① 주민 1인당 총자산
②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②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	② 주민 1인당 총부채
③ 유형고정자산 대비 금융상품 비율	③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③ 주민 1인당 실질부채
④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④ 이자수의 대비 이자비용 비율	④ 주민 1인당 총수익
⑤ 현금창출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⑤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⑤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⑥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	⑥ 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⑥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⑦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	⑦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⑦ 주민 1인당 총비용
⑧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⑧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⑧ 주민 1인당 민간등 이전비용
⑨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⑨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⑨ 공무원 주민 1인당 총수익
	⑩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⑩ 공무원 주민 1인당 총비용
		⑪ 공무원 주민 1인당 급여

- 현행 3개 분야, 30개 지표는 산출과정이 복잡하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이 존재하여 개선된 3개 분야 10개의 핵심지표를 선정
- 개선된 3개 분야는 유동성 분야, 안정성 분야, 재정관리 분야로 구분
 - ① (유동성) 단지 부채 상환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능
 - ② (안정성) 자산·부채의 관리자금 운용과 조달 관련 지표로 기능
 - ③ (재정관리) 수익·비용의 효율적 운영관리 차원의 지표로 기능

표 2 10개 핵심지표

분야	핵심지표	산식	기존분류
유동성	1.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	차입부채/재정자금×100	재정상태
	2.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	유동부채/유동자산×100	재정상태
안정성	3-1.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총부채/총자산×100	재정상태
	3-2. 총자산 및 총부채 증감율	(당기자산·부채/전기자산·부채)-1	재정상태
	4.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총부채/총자산×100	재정상태
	6. 미수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미수금 대손충당금/미수금×100	재정상태
재정 관리	7.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100	재정운영
	8. 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경상자체조달수익/경상수익×100	재정운영
	9. 재정운용결과	재정운영순원가-일반수익 등	재정운영
	10. 재정운용순원가보상률	일반수익/재정운영순원가×100	재정운영

■ 미시적 측면의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비대칭적 원가행태의 실증연구 결과, 재정운영표상 항목별 원가행태가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원가 분석 모델을 제시
- 분석모델은 지방회계기준에 의한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와 접목하고, 프로그램별 운영원가 및 사용료 부과대상 원가를 계산하여, 각 프로그램별 단위당 원가 산출 모델을 제시

■ 재무회계정보의 활용 및 개선

-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 측면에서 미·거시적인 활용방안 제시

표 3 재무정보의 미·거시적인 활용방안

거시적 측면	미시적 측면
① 과도한 정보량을 줄이고, 핵심지표 중심으로 관리 가능한 지표도출	① 지방재정 여건의 지속적인 악화가 예상됨에 따른 자발적 재정구조 개편(세입확충, 세출 구조조정 등) 노력 필요
② 단순한 지표의 산출이 아니라 재정분석 등 자치단체가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②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활용한 공공시설 원가 분석을 통해 의존 재원뿐만 아니라 자체재원 확충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

표 3 의 계속

거시적 측면	미시적 측면
③ 새로운 신규지표 개발을 통해 인구감소, 자산 노후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계열 등 분석 실시	③ 예산결산 중심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발생주의 관점에서 단위 사업별 원가정보를 활용 하여 성과지표의 연계 필요
④ 위기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채 관리방안 개선 등 추진	

● 토론내용

좌장 김완희 교수(가천대학교)

- 지자체의 부채비율이 현재 약 2%로 매우 낮는데, 부채비율을 다소 높더라도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절히 마련하면, 신용평가나 감사기능도 확대되어 지자체 재정에 선순환구조가 마련될 것이며, 향후 관련 논의 필요
- 중앙정부도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채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며, 지자체도 공공부문의 부채통계에 대한 국제통계지침인 PSDS 등을 활용하면 좀 더 좋은 기준 마련이 가능할 것임

토론 1 강민철 팀장(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발생주의 복식부기 정보의 활용 및 활성화, 지자체 간 비교분석의 가능성, 지자체 간 비교 가능한 지표 및 지자체의 발생주의 정보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연구를 시작
- 이를 토대로 기존의 30개의 재무분석지표를 10개의 핵심지표로 개편하였으며, 이 핵심지표가 지자체 간 비교분석에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담당자나 정책결정자들도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현금주의보다 발생주의가 유용함을 확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형 간 비교 등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

토론 2 김숙진 팀장(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 지방정부(지자체)에 적용하기 위해 제안한 현행 30개 세부지표와 신규 10개 핵심 지표에 대한 중앙정부 활용 가능성 검토
- 재무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위해서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표관리 필요
- 재정수지와 채무비율은 예산과 재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금 정보는 1960년대부터 축적되어 있으나, 발생주의 정보는 아직 10년 정도 쌓여서 활용도가 미진함
- 정의 환류를 위해 재정성과평가에 재무정보가 더 녹아들어 갈 수 있는 방법 필요

토론 3 박성진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시행 10년이 지나도 왜 나아지지 못하는가를 고민하지만, 세계적 경향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회계제도를 전환하고 있으며, 약 70% 정도의 나라에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확산되고 있음
- 이제는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부채비율 등 회계책임정보를 포함한 지표활용방안 마련이 필요
- 지표는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필요함. 즉, 재정운영 순원가 등 지표의 숫자를 이용하여 이를 잘 해석하고 어떤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토론 4 강인재 원장(재정성과연구원)

- 우리나라의 재무유용성은 규범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재무지표의 유용성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를 수정 보완할 방법 필요

* 2,000개의 원가정보가 있지만, 사업별 유사성이 있어도 사업 명칭이 달라서 활용하지 못함

* 노후화에 대한 수선유지비 정보의 부정확성이나 이호조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토론 5 정성호 소장(한국재정정보원)

- 자산 대비 부채비율 등 30개 재무분석지표가 실제 의미하는 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즉 지자체의 부채비율은 평균 2%가량 산출되나, 자산의 80% 이상이 사회기반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지표 해석에 주의 필요
- 재무제표의 재정운영결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운영차액을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고, 중앙정부는 현금흐름표를 신설한바, 지방정부 또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토론 6 양영철 본부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지방정부 소멸 측면에서 계속기업의 타당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자체의 재정 효율성 및 존속 가능성을 비교할 수 있는 주민·공무원 1인당 지표는 10개 핵심 지표에 포함 필요
- 부외부채의 시장이자율을 활용하여 이자비용을 산출하여 표시하면 부외부채의 간접적 통제가 가능할 것임
- 지방정부는 상생발전 등 재정효율 대비 형평성 중심의 사업을 운영하므로 재정 효율성만 중시하는 지표 적용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토론 7 나주영 회계사(정유회계법인)

- 지방재정의 위기관리 측면에서 단기 차입 여력을 평가하기 위해 재정자금 대비 유동차입 비율 지표를 핵심지표에 추가하고,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제시할 필요
- 국가회계나 지방재정통계자료는 차년도 5월 이후에 공시되는 등 정보의 적시성이 낮으며, 부채지표는 분기·반기에 제시 필요
- 대행사업의 경우, 수입은 지자체 재무제표에 반영되나 비용은 공사공단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므로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필요

토론 8 김이배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 국가 전체의 측면에서 부채비율을 파악해야 하며 연금개혁, 건보 재정개혁,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논의를 위한 회계정보 생산 및 활용 방안 마련 필요

I II. [정책세션] 국가재무제표 정보

[발표1] 진태호 국가회계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표2] 박성진 소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좌 장] 성시경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1] 심재영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토론2] 이계형 연구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토론3] 고경영 센터장, 성현회계법인

[토론4] 엄기중 교수, 국립순천대학교

● (발표 1) 국가결산 체계 개편 추진 현황

발표자 진태호 국가회계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 마련

- (기본방향)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민중심 결산서를 제공하고, 재무제표 기반의 결산 분석기능을 확대하며, 국제흐름에 부합하는 결산서 작성
- (재무제표)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간소화 및 분류체계 개편, 현금흐름표 신설
- (주식) 22종 59개 항목으로 확대 및 기존의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 삭제

■ (재정상태표) 분류 체계 개편 및 간소화

- 자산, 부채의 개별 항목을 장단기 구분 없이 항목별로 통합하고, 자산·부채 계정과목을 그룹별로 묶어주는 중간단계 신설
 - * (자산) 금융자산, 유형자산, 기타자산, (부채) 차입부채, 충당부채, 기타부채
- 재정상태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시 계정과목을 현행 102개에서 32개로 간소화하고, 각 공시 계정과목의 세부사항은 주식에서 상세 공시
 - * 감가상각누계액, 대손충당금 등 차감계정과목을 공시 계정과목에서 삭제

■ (재정운영표) 분야별·성질별로 개편

- (분야별) 분야별 투입 원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별 재정운영표를 분야별 사업원가 집계방식으로 개편하여,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예산 15대 분야로 구분 표시하고, 각 중앙관서의 재정운영표 프로그램단위 원가를 통합하여 15대 분야별로 분류
- (성질별) 수익·비용 측면의 세부 구성 내역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주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수익은 국세수익,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으로, 비용은 재정활동 성격에 따라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으로 분류

■ 현금흐름표 도입

- 현행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는 현금주의와의 차이내역만 공시하고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을 통해 현금흐름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국가 활동별 현금흐름 파악을 위한 현금흐름표 도입
- 현금흐름표는 국가 활동을 운영, 투자, 재무로 구분하여 각 활동별 현금흐름을 파악

* (운영활동) 국세수입 등 경상적인 정부운영에 따른 현금유입 및 인건비 등의 현금유출

* (투자활동) 투자증권, 유형자산 등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유출입

* (재무활동) 국채발행, 차입 등에 따른 현금유입 및 국채상환, 차입금 상환 등에 따른 유출

■ 주식체계 개편

- 재무제표에 대한 보완정보인 필수보충정보(7종)와 부속명세서(12종)를 주식(24종 80개 항목)으로 단일화하고, 재무제표 간소화에 따라 축소된 계정과목별 세부정보를 주식으로 상세 공시
- 국가결산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회계 및 기금 현황 정보를 포함하고, 수익 및 비용 계정과목 등에 대한 설명 확대

■ 체계 개편 추진 일정

- '23년에 현금흐름표 신설 등을 반영하여 국가회계법령을 개정했으며, '24년까지 국가회계기준 및 예규 제·개정을 추진 예정
- '26년 5월, 2025회계연도 개편 결산서를 국회제출 예정

● (발표 2) 공공부문 ESG 공시기준 국제 동향

발표자 박성진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기후’ 중점의 ESG 공시 기준 논의
 - 기업 간 ESG 활동 목적이 상이하고, 그린워싱의 발생 가능성과 ESG 정보 표준화를 위한 세분화의 어려움으로 ESG의 구성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모든 구성요소의 공시를 논의하기는 한계가 있어 본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함
- 기업부문 기후변화 ESG 공시기준
 - 2015년 파리협약을 계기로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를 설립하였음
 - '17년 TCFD는 권고안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기회·위험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경로를 제시하며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및 지표·목표 등 이른바 양파망 구조의 기후변화 공시체계를 주장함. 이는 미국 SEC 기후공시와 IFRS S1, S2⁶⁾ 및 IPSASB 공공부문 기후변화 공시 기준 등의 기후변화 관련 ESG 공시 기준들의 기본 틀로 활용되고 있음
 - 중요성 측면에서 기업부문의 기후변화 ESG 공시기준을 살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기후 관련 정보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인 '단일 중요성'을 강조하는 IFRS S1, S2 및 미국 SEC의 기후공시가 있으며, 환경·사회적 요인 등 폭넓은 외부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활동이 지역·사회 등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공시하는 '이중 중요성'을 강조하는 GRI와 EU의 CSRD를 들 수 있음⁷⁾
-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공시기준
 - 1) IPSASB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기준 제정 현황
 - IPSASB에서는 IPSAS와 분리된 지속가능성보고기준(SRS)을 제정하고, 올해 9월에 기후 관련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임

6)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7) GRI(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 기후 관련 공시기준은 IFRS S2, GRI 기준 및 TCFD 양파망 모델을 차용하는 등 다른 기준들의 문구를 병렬로 작성하여 하나의 기준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GRI 기준의 영향과 IFRS의 위험과 기회의 범위를 공공부문 보고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공시안을 마련 중임
- GRI 기준 차용 시에는 보고실체가 경제, 환경 및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기후 관련 영향’으로 명시하고, IFRS S2 차용 시에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는 기후 변화가 보고 실체의 서비스 제공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임을 명시하였음
- 최근에 IPSASB에서 발표한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의 목적과 4가지 가정을 살펴 보면, 먼저 목적으로는 단기성과로 공공부문 기후변화 공시의 확산과 정부 정책 활동과 서비스 제공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장기성과로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의사결정 유용성을 위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 준수의 기여를 제시함. 기후 관련 공시기준의 4가지 가정은 다음과 같음

표 4 기후 관련 공시기준의 가정

NO	주요 내용
1	정부의 다양한 활동들은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국제협약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2	정부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들이 국제협약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기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3	실체별 정보는 국가수준 정보의 질을 높임
4	공공부문 기후변화 관련 공시의 기본 틀은 정부의 자체 행정 활동에 대한 책임성은 물론 정책 기능에 대한 책임성 제고에 기여해야 하며, 민간 기후 관련 공시 기준에 합치되어 투자자의 정보 수요에도 대응해야 하고, 국제협약 준수에도 도움이 되어야 함

2) 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의 기후 관련 공시제도

- 2021년, FASAB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ED 14030)에 따라 유형자산의 범위를 넘어 정부의 대차대조표, 연방정부 프로그램 또는 정부서비스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재정위험에 대한 공시체계를 마련하는 연구를 시작함
- 2022년 5월, 기존 미국 연방회계기준을 기후변화 관련 공시에 적용한 Staff Paper를 발간함

- 파리협약과는 별개로, 기후변화가 연방정부의 유형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부 관심에서 공시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기후변화 관련 공시에 한정하고, 기후변화가 연방정부의 자산, 부채,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인 재무적 중요성만 공시하는 입장을 유지함
- 우리나라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공시기준 방향성에 대한 논의 필요
 - 기후 위기의 비용보다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비용이 현저히 낮으므로 공공 부문의 기후변화 공시 안 마련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EU와 같이 이중 중요성을 강조할 것인지, 미국과 같이 재무적 영향에 한정하는 단일 중요성을 채택할지에 대한 논의 필요

● 토론내용

토론 심재영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개념체계의 부재로 '국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결산체계 개편으로 용어 및 순서 변경 시 국민이 이를 이해하기 쉬울지에 대한 의문 존재
- 재무제표보다 결산개요 등 서술적 방식을 이용하여야 정보의 유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국가결산서 목차상 세입·세출결산서보다 결산개요, 재무제표가 먼저 나와야 할 필요가 있음
- 중요성을 고려하여 '조원' 단위 공시가 바람직하며, 결산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작성 책임자, 감사인을 둘 필요가 있음
- ESG 관련 공시는 필수적이나 공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존재함. 향후 국제적인 지침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조세연 등을 통한 교육 제공이 중요함

토론 이계형 연구위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국가 재무제표 간소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며, 지자체의 경우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의 큰 성과로 제시하고 있음
- 지자체의 경우 현금주의 정보와의 차이 설명의 어려움 등으로 현금흐름표 작성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며, 추후 국가 상황을 참고하여 행정안전부 제안을 고려해 보겠음

- 지자체의 경우 과거에 성과보고서상 장관 사인 추가를 추진한 바 있으나, 실무자 측의 반대로 실패한 경험 있음
- 일반정부재정통계(GFS)의 경우 개인적 서비스와 집단적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단순 분야보다 그룹으로 묶어 원가정보를 제공하면 의미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임

* 개인적 서비스: 보건, 복지, 교육 등 개인이 받는 배타적 서비스

* 집단적 서비스: 경제, 사업, 중소기업 분야 등

토론 고경영 센터장(성현회계법인)

-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만을 강조하는 단일 중요성과 이중 중요성을 양분하였으나, 경계가 모호하므로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마련 논의 필요
- 기후변화 관련 공시 체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위험관리이며, 공공부문에 적용 시 형식적인 것이 아닌 관리체계, 조직, 절차, 모니터링 지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위험관리 필요
- 공급망 전체에 걸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여나가야 하므로 공공부문의 공급망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 파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토론 엄기중 교수(국립순천대학교)

- 감가상각누계액은 노후화 정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공시 생략이 적절한지 재검토 필요
- 현금흐름표 추가는 간소화와 반대되는 방향이라고 판단되며, 세입세출 정보와의 차이점, 보완점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활용도가 있을 것임
- 계량할 수 있는 기후만 공시하는 경우 인식·측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며, 사회와 지배구조의 공시도 포함하여 정부가 민간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참고

행사 주요 사진



「PULSAR joint EduCoP & FinCoP Workshop」 발표



주 제: (1) 한국의 공공투자관리와 공공재무관리의 연계 사례
(2)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보고기준 개발

일 시: 2024년 6월 5일(화) ~ 6일(수)

장 소: 몬테네그로 울친 회의장, 온라인 참여

발표자: 박성진(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세계은행 재무보고개혁센터(CFRR)⁸⁾는 2023년 6월 5일~6일간, 몬테네그로 울친에서 「PULSAR joint EduCoP & FinCoP 9차 Workshop」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공자산관리와 공공투자관리 및 공공분야 회계 기준의 연계, 그리고 지속가능성 보고’를 주제로 공공투자관리 평가방법론과 국별 사례 및 지속가능보고가 공공분야 회계기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성진 소장은 본 워크숍에서 “한국의 공공투자관리와 공공재무관리의 연계 사례”를 주제로 한국의 공공투자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공공기관 재무관리로의 연계 사례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제도, 타당성 재조사를 포함하는 공공투자관리의 upstream(상류) 활동에서 출발하여 공공투자의 시행과 운영 및 평가를 포함하는 downstream(하류) 활동으로 이어지는 한국 공공투자의 생애주기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또한 공공투자관리가 공공자산관리로 연계되는 사례의 하나로 한국의 사회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대상의 경영평가 제도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2023~2027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소개하여 공공기관의 회계정보를 통한 공공투자자와 자산관리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8) 세계은행 재무보고개혁센터(World Bank Centre for Financial Reporting Reform)

이어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보고 기준 개발”의 주제 발표에서 기준 개발의 권고 사항으로 UN SDGs와 파리협약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국가를 대표하여 정부가 체결한 법적 의무를 고려하여, 국가단위의 보고와 보고실체 보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고실체 자체와 보고실체의 정책 수립자로서의 역할 구별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반영하는 영향 중대성(Impact materiality)을 고려하고 예산, 재무 보고 및 일반정부재정통계(GFS) 간의 연계를 정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관련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의 사례들로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브라질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를 살펴 보았다.



「캄보디아 ACAR 대표단 업무협의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6월 14일(금) 캄보디아 재무부 산하 Accounting and Auditing Regulator(이하 'ACAR')와 한국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경험을 공유하고자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캄보디아 ACAR은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캄보디아의 회계 및 감사 실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회계 및 감사 기준의 제정과 시행, 회계사 등의 자격 관리, 감사 품질 검사, 교육 훈련 제공 등을 통해 캄보디아의 회계 및 감사 기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NEAN Bony Deputy Director General 등 ACAR 대표단 6명이 참여하였으며, 센터에서는 박성진 소장이 참석하여 법적 기반 및 국가회계 기준 마련 등 한국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과정과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및 준비 과정, 재산 재평가와 공공분야 일반목적재무보고서 통합 등의 향후 도전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양 기관은 국가회계 기준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반 마련과 회계결산 담당자 대상의 교육 훈련 등 성공적인 발생주의 회계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향후에도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향후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회계
재지토계



오피니언

////////////////

- 국가결산 개편과 현금흐름표 도입에 대한 소고
노희천 송실대학교 교수

국가결산 개편과 현금흐름표 도입에 대한 소고

노희천 숭실대학교 교수



앞으로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결산서'로 국가결산체계가 개편된다. 국가결산체계 개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배경에서 추진되었다.¹⁾ 첫째, 기존 국가결산서는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분량이 방대하여 일반 국민 등 정보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재무제표 단순화 및 분량 축소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둘째, 발생주의 회계 도입으로 미래 재정 부담 예측 및 건전성 관리를 추진했지만,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재정상태표는 일부 활용되었지만, 다른 재무제표는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국가결산체계 개편 논의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 2022. 12. 16. (제32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안건)

국가결산체계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다.²⁾

(1) 재정상태표 분류체계 개편 및 간소화

- ① 자산·부채의 단기·장기 구분 없이 항목별로 통합
- ② 공시 계정과목을 34개로 간소화하고, 세부 사항은 주석을 통해 상세히 공시
- ③ 유형자산, 대여금, 미수채권, 국공채 등은 총액 표시에서 순액 표시방식으로 전환

(2) 재정운영표를 분야별·성질별로 개편

- ① 부처별 재정운영표를 분야별 사업원가 집계방식으로 개편
- ② 복잡한 수익·비용 분류를 간소화하고 유사한 비용 항목을 통합하여 공시과목 간소화

(3) 현금흐름표 도입

- ①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집계하는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에 포함
- ② 운영활동 작성 방식은 직접법을 채택

(4) 주석체계 개편

- ①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주석(22종 59개 항목)으로 통합·단일화
- ② 재무제표 간소화에 따라 축소된 계정과목별 세부정보를 주석을 통해 상세히 공시

(5) 결산개요 개편

- ①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부총리 메시지
- ② 재무결산 분석정보 확대

국가결산체계 개편 중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현금흐름표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현금흐름표 도입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① 현금흐름표 도입으로 재정 활동별 현금흐름 파악이 가능해진다. 기존 세입·세출 결산으로는 회계, 기금별로 현금흐름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단순 목별 집계 정보만 확인 가능하여 통합적 현금흐름 파악에 한계가 있다. 현금흐름표를 통해 회계·기금을 포괄하는 국가 전체 현금흐름을 정부 운영, 투자,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결산 개편과 현금흐름표 도입」, 2024. 6.

② 현금흐름표를 통해 정부 현금흐름의 질적 분석이 가능해진다. 재정활동별 현금 조달원천과 사용결과를 집계하여 현금흐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계잉여금 발생 시 단순 현금 증가로 표시되는 것을 넘어, 현금흐름표를 통해 각 활동별 증감을 파악하여 현금흐름의 건전성 및 미래 지출 의무 수반 여부 등을 분석할 수 있다.

③ 현금흐름표를 활용하여 재정지출의 자산연계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연간 재정지출이 자산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을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을 통해 확인한다. 기존에는 총지출의 자산취득 규모 대비 재정상태표상 고정자산 증가 효과가 낮아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다.

도입할 현금흐름표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현금 관련 재무정보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 2011년부터 2022년에 걸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단기투자증권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³⁾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감소추세이고, 단기투자증권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금융상품은 재정운영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4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크게 감소하고, 단기금융상품이 크게 증가하는 변곡점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는 단기투자증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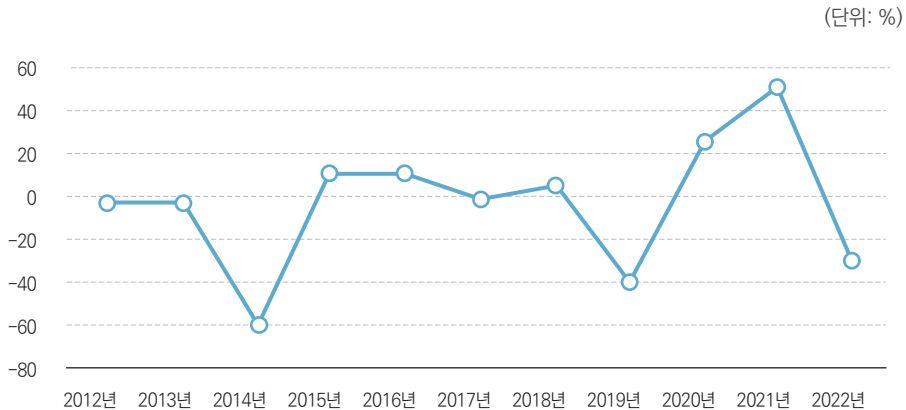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05,258	102,834	100,048	39,830	44,529	49,773
단기금융상품	16,532	16,339	14,607	60,589	52,227	45,121
단기투자증권	83,080	81,432	103,934	123,564	160,694	189,356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49,342	51,736	30,982	39,009	59,049	41,309
단기금융상품	31,951	54,643	62,975	68,989	64,618	41,787
단기투자증권	229,065	207,188	270,899	292,109	327,489	323,449

현금흐름표 도입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감률만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증감률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 이후부터는

3)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 요약

증감률이 커지고 2019년부터는 20% 이상의 증감률을 보일 정도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현금 흐름표를 도입하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변동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제 중요한 점은 현금흐름표 도입을 통해 기대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결산을 운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 2011년부터 발생주의 결산인 재무제표 도입으로 국가결산체계가 크게 도약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아직도 재무제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이런 상황으로 미뤄볼 때, 단순히 현금흐름표 도입만으로 재정활동별 현금흐름 파악, 정부 현금흐름의 질적 분석, 재정지출의 자산연계효과 확인 등이 달성된다고 기대한다면 순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흐름표를 활용하여 재정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가장 시급한 사항은 정부 내부로부터 현금흐름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① 정기적인 업무 연찬

정부 정책 당국자를 대상으로 현금흐름표 작성 방법, 해석,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금흐름표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적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어떤 사유에서 발생하는지 수시로 확인하면서 현금흐름 변동성의 의미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유예 정책 종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작성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현금흐름표를 도입하는 정책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도록 유예종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현금흐름 정보를 확보하고, 국가의 전체적인 현금흐름 정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만 현금흐름 정보를 분석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현금흐름 정보를 분석하여 재정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부처별·사업별 운영활동현금흐름 내부작성 유도

현금흐름표는 국가 전체 관점의 현금흐름 정보를 파악하도록 구성된다. 하지만 실제 재정활동의 현금흐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처별·사업별 운영활동 현금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처별·사업별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부처별·사업별 운영활동 현금흐름을 작성할 수 있는 작성지침 및 표준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처별·사업별로 운영활동현금흐름을 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로드맵 설정도 좋은 시도로 판단된다.

④ 재정성과금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현금흐름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부처 및 사업에 재정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현금흐름표를 활용하여 재정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우 교부금 추가 지급의 인센티브 정책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현금흐름표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면 국가 차원의 현금흐름표 정보도 유용성이 증대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가결산체계 개편에 맞춰 시스템을 증진시키기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외부감사 도입

외부감사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회계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외부감사를 통해 재무제표 작성 과정의 오류를 줄이고,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정부회계 담당자들이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작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⁴⁾

② 분기보고 도입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기별 결산을 통해 정부의 재정 운용상황을 자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⁵⁾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분기보고를 도입하면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⁶⁾ 특히, 경기침체나 급격한 물가 상승 등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 발생 시, 분기별 결산 정보는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최근 8년간 오류수정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매년 자산, 부채 및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오류를 수정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오류가 가장 큰 경우에는 2021년에 약 26조원의 자산금액이 수정되었다.(연도별 국가결산검사보고 요약)

(단위 : 십억 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산	4,639	-654	2,862	-304	-3,084	26,163	-2,689	-5,106
부채	-36	-40	678	174	-3,556	-1,085	-268	242
재정운영순원가	1,906	363	-436	49	-318	-28,888	2,233	4,628

5) https://www.ecb.europa.eu/pub/euroareafinancialaccounts/html/ecb_eaqfa202305~1d44e20907.en.html

6) <https://www.imf.org/en/Capacity-Development/Training/ICDTC/Courses/QNA>

③ XBRL 도입과 AI시대 대응

국가회계에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을 적용하면 방대한 국가재정데이터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할 수 있다.⁷⁾ 또한 국가회계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미래 변화에 대한 유연한 재정정책 대응도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예산집행 분석, 재정건전성 평가, 성과평가 등 고급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접근은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국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국가결산체계 개편과 현금흐름표 도입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국가결산체계를 정비하여 재정정책에 활용한다면,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많은 재정 및 회계 전문가가 국가결산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한다.

7) 만약 도입한다면 XGRL(eXtensible Government Reporting Language)로 표기하면 좋다고 보인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구독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는 회계전문연구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발간하는 분기발간 물로서, 주요 내용으로 국가회계, 국가결산, 국가회계교육, 재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 법인회계기준 등에 대한 동향 및 분석 자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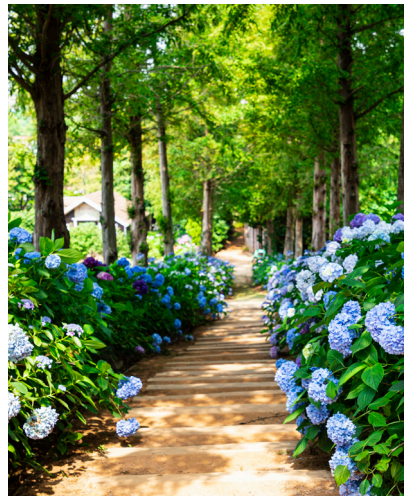
- 홈페이지 신청 <http://gafsc.kipf.re.kr>
- 이메일 신청 gafsc@kipf.re.kr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신 발간자료와 주요 발간자료 메뉴를 통해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브리프, 세미나자료 등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발간물 등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561 Fax 044.414.2570

